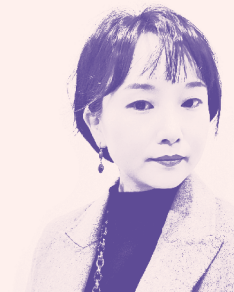




문화예술 속 교량의 미학

문학 (시, 수필, 소설), **미술** (회화, 조소, 공예, 영상), **공연**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축제)
작품 속 교량의 미학적 가치를 찾아서

문화예술(文化藝術)은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이다.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기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문학, 영상, 공연, 전통, 음악 등 예술 및 문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출처: 위키백과]



문지영 | 작가
 외교, 예술학학사, 조경학석사, 공학박사
 (sieyoungmoon@gmail.com)

저자 문지영은 글 쓰는 작가이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술서로는 ■ 내려놓기(2022년, 교보eBook 전자책) ■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2012년 초판, 2022년 초판3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미학적으로 교량보기(2014년 초판,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2014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 자연과 문명의 조화, 토목공학(2015년 초판 공저, 2018년 개정판 공저, 초판3쇄+2판3쇄,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 숫자로 보는 대한토목학회 70년(토목 70년(1951-2021), 그리고...) (2021년 공저, e-book+paper book) ■ 내가 사랑한 디노베이터 Design Innovator I loved(2020년 공저)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의 100년 돌아보기(2016년 공저) ■ 생각을 말해보(2015년 공저) ■ 현대 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2006년 공저) 등이 있으며, ■ 토목기술사의 비밀노트(2024년, 2024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 토목, 인생, 무엇이 궁금해?(2023년 초판, 2023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 다리 구조 교과서(2017년)는 감수를 했다. 유튜브 <나답게: 토목과 디자인 그리고 조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2022년)> 영상에 보다 자세한 저자 소개를 담았다. ❶ 2023년 봄호부터 시작한 본 도로교통저널 <문화예술 속 교량의 미학> 연재에 이어, ❷ 2024년 3월부터 대한토목학회 학회지에 <문화예술 속 토목구조물의 미학>을 매달 기고하고 있다. ❸ 2024년 6월부터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학회지에 <문화예술 산책> 제목으로 연재하고 있다.

제9편 쉼다리

2025년 봄호

‘쉼다리’는 ‘흙다리, 토교(土橋)’라고도 불리는 다리이다. 쉼다리는 쉼과 다리의 복합어로, ‘쉼’은 쉼나무의 준말이며, 잎나 무릇나무·물거리나무·참나무·소나무 따위를 통칭한다. 쉼나무(쉼)를 엮어서 만들어 놓은 다리인 쉼다리는 강물(혹은 냇물, 하천)의 수심이 알아지는 10월 혹은 11월경, 대개 가을걷이가 끝난 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다. 나뭇배로 이동하기 어려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우수기(장마) 때 자연적으로 다리가 무너지기도 혹은 그 이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리 철거하기도 한다. 가설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가설하기를 반복하는 다리인 쉼다리는 튼튼한 돌다리(석교) 혹은 철근-콘크리트 교량과 같은 영구불변(靈樞不變)의 다리가 아니라는 데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흙자는 쉼다리를 ‘이별다리’라고도 부른다. 자연의 재료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졌다가 때가 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자연·친환경적인 다리이다. 때로는 철거한 일부 목재를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1〉, 〈그림2〉 판운 쉼다리 (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쉼다리마을에 놓인 ‘판운 쉼다리’는 총길이(연장) 약 70m, 한두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교면(교량 상판) 폭과 Y자형 다릿발(교각)로 구성 된다. 다릿발을 연결해서 고정하는 나무(보)를 ‘머그미, 머기미’라고 하고, 상판을 덮는 길고 굵은 나무를 ‘열모, 널래’라고 부른다. 본 쉼다리를 이용하기 전 안전 수칙이 입간판으로 설치되었다. 내용은 <①다리를 건널 때에는 뛰거나 장난을 삼가시오. ②야간(18시 이후)과 기상악화 시 통행금지. ③단체로 동시에 이동하지 말기. ④노약자와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를 동반하여 통행하라. ⑤음주 후 통행을 삼가고, 쓰레기 투기를 금한다. ⑥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하시오.>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쉼다리의 물리적인 형태와 특징에 기반한 안전 수칙이므로 따르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용자들을 위해 상세하게 알려 놓았으니 이를 칭찬한다.

쌍다리노래



〈그림3〉, 〈그림4〉 판운 쉼다리 (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그림5〉 주천강 쌍쉼다리 (출처: 강릉공지 사진여행)

우측의 「쌍다리노래」는 주천강 쌍쉼다리를 놓을 때 불렀다. “강원도 관찰사가 장릉을 참배할 때 강을 편히 건널 수 있도록 쌍다리(=쌍쉼다리)를 놓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쉼다리의 재료와 쉼다리 놓는 과정을 성(性)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소리꾼이 선소리를 메기면 후창자들이 “에헤라 쌍다리요.”로 받는다.¹⁾

“에헤라 쌍다리요// 다리 노려 어서 오게/ 다리 노려 바빠 오게// 다리 노려 모두 가세/ 다리를 노려 같이 가세// 장릉 알현 귀한 길의/ 강원감사 그 행차가// 편안히 건느도록/ 감사 다리 놓아 주세// 무사하게 건느도록/ 쌍다리 놓아 주게// 나무꾼은 나무 베고/ 장정은 다리 놓고// 아낙네는 음식 날려/ 모두 나와 다리 놓세// 마을 다리는 외다리요/ 감사 다리는 쌍다리는// 다리밭도 두 다리요/ 님의 다리 두 다리니/ 에헤는 쌍다리요/ 님의 다리 다 두리요/ 내 다리도 두 다리니// 세상 사람 하나같이/ 다리 위를 좋아하니// 발 안 빼고 건너가니/ 뉘라서 싫어하리// 누운 다리 좋을시고/ 자빠진 다리 싫찮으나// 이 다리는 아니 되지/ 감사 행차 어이할고// 다리밭을 박아 보세/ 곳곳하게 바로 박자// 물살에 넘어질라/ 튼튼하게 잡박아라// 쌍다리의 조화이지/ 모두 다 알것마는// 다리밭을 헛박아서/ 무자식을 한탄하네// 덕원이를 얹어 주게/ 덕원이를 끼워 주게// 고대광실 양반집의/ 큰 도리를 올리듯이// 조심하여 올려 주게/ 탄탄하게 끼워 주게// 덕원이가 빠지면/ 이 다리는 쓰러지니// 왕릉 알현 감사 일행/ 건느지 못하리니// 외로웠던 대왕 혼령/ 섭섭하게 여기리라// 다리밭과 덕원이에/ 췌기를 박아 주게// 흔들리지 아니하게/ 뽏뽏하게 박아 주게// 박는 것은 무엇이냐/ 뽏뽏해야 하느니라// 다리 밟아 얹어 주게/ 다리 밟아 걸어 주게// 산수절경 좋은 터에/ 풍류 정자 지을 적에// 덕원이에 잘 걸어서/ 안 빠지게 잘 걸이라// 다리 밟아 튕거지면/ 감사 발목 빠지리니// 이 아니 큰일인가/ 공들여 잘 걸이라// 솔갑을 찍어 오게/ 솔갑을 날라 오게// 솔갑을 깔아 주세/ 솔갑을 잘 깔아라// 원앙금침 요 깔듯이/ 반듯하게 고루 깔세// 지붕 위의 이영 잇듯/ 고루고루 깔아 주게// 흙을 지세 흙을 지세/ 모두 나와 흙을 지세// 너는 두 짐 나도 한 짐/ 모두 함께 흙을 지세// 두껍게 저부어라/ 골고루 퍼 주어라// 첫날밤에 이불 퍼듯/ 반듯하게 퍼 주어라// 바자를 엮어 오게/ 짜리바자 틀어 주게// 너 내 다리 비꼬듯이/ 찰싹 붙여 잘 틀어라// 고대 누각 난간같이/ 새 신방에 병풍 치듯// 바자난간 잘 세워서/ 바람 막고 재난각세// 다리를 놓았구나/ 쌍다리를 놓였구나// 감사 행차 쌍다리나/ 이불 속에 쌍다리나// 쌍다리는 일반이라/ 뉘라서 싫어하리// 일꾼들은 땀 흘리고/ 다리 밑엔 물 흐른다// 에헤라 쌍다리요.”

1)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yeongwol

조선 후기의 화가 이재관(李在寬, 1783(정조 7년)~1837년)의 《귀어도(歸漁圖)》(그림6)는 〈소당화첩(小塘畵帖)〉 8폭의 그림 중 여섯 번째 작품이다. 화면 좌측에는 무성한 소나무 군에 둘러싸여 있는 초가집이 보인다. 먹의 농담으로 표현한 다양한 수목 식재를 통해 유추해 보건데, 꽤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임을 알 수 있다. 굵고 진하게 그려진 튼튼해 보이는 교각의 쉼다리 초입에는 망태기를 매고 물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漁夫)가 그려졌다. 쉼다리 형상으로만 보면 교각 사이사이에 교각을

하나씩 더 놓고 교면을 보다 평평하게 조정하면 구조적 실용적 측면에서 더욱 안정적일 것 같다. 저 멀리 원경(遠景)의 하늘 중앙에는 황하니 크고 둥근 달이 떴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이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포근하고 은은한 달빛이 화면 밖으로까지 느껴진다. 사립문 바로 앞에서 검둥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고 있다. 화폭의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에 근거리의 쉼다리까지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전해진다.



〈그림6〉《귀어도(歸漁圖)》, 이재관(李在寬), 33.5 x 26.6cm, 수묵담채화, 1837년,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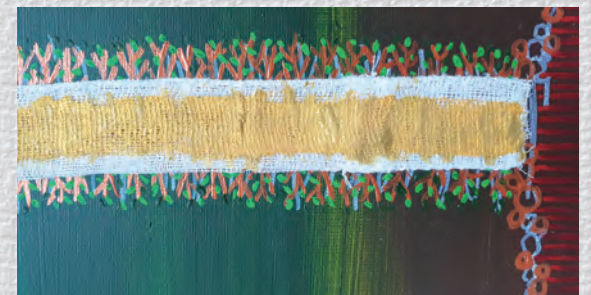
〈그림7〉《설중귀려도(雪中歸驢圖)》, 김명국(金明國), 55.0 x 101.7cm, 삼베에 담채화, 조선시대 17세기 중엽,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중기 화가인 연담(蓮潭) 김명국(金命國)(1600?~1660?년)이 그린 《설중귀려도(雪中歸驢圖)》(그림7)에서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겨울 눈 덮인 새벽녘에 사립문 앞에서 남편을 전송하는 아낙네(내인; 內人)와 뒤를 돌아보며 길을 떠나는 나귀를 탄 선비(남편)의 송별(送別) 장면이 일린다. 쉼다리 위에서 종자(從者)가 고사(高士, 나귀 탄 선비)의 길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8〉《목동귀가(牧童歸家)》, 김홍도(金弘道), 25.3 x 34.0cm, 수묵담채화, 19세기 초, 개인소장

조선 후기의 풍속 화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의 《목동귀가(牧童歸家)》(그림8)에도 쉼다리가 근경(近景)에 놓였다. 크고 무거운 소를 타고 목동이 쉼다리 위를 이동하는 중이다. 다리 아래로 떨어질까 위태로울 법도 한데, 화면 속 들녘의 여러 겹 수평(水平) 구도(構圖) 때문인지 아슬아슬함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진다. 목동(牧童)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歸家)도(圖) 주제와 딱 맞는 나른함과 여유가 가득한 그림이다.



〈그림9〉《쉼다리 (1)》부분 (©문지영 작품)



〈그림10〉《호계삼소(虎溪三笑)》, 최북(崔北), 21.0 x 29.7cm, 건본담채화, 조선 후기, 간송미술문화재단

세 명이 삼각구도를 형성하며 쉼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그린 최북(崔北, 1712~1760년)의 《호계삼소(虎溪三笑)》(그림10), 쉼다리 위 각각의 인물에게 자연스럽게 눈이 간다. '호계(虎溪)'란 '개울가에서 세 사람이 웃는다.'라는 뜻으로, 유(儒)·불(佛)·도(道=仙)의 진리가 그 근본에 있어 하나(單一)라는 걸 상징하는 단어이다. 유교(儒敎), 불교(佛敎), 도교(道敎)를 상징하는 세 명의 성인(聖人)이 쉼다리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삼소: 三笑, 상징성(象徵性)이 가득 담긴 그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세 종교가 그 근본은 하나이더라도 외형은 각기 다르니, 자칫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다. 좁은 교량(교량 폭)의 다리 위에서 단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교량 하부로 낙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 세 명은 태연하게 웃고 있다. 이미 도(道, 초탈, 지극, 선)를 터득한 자들의 여유 있는 모습이다.

아래는 필자의 작품으로, 좌측부터 ①곧은 선형의 쉼다리(그림11), ②곡선형 쉼다리(그림12), ③사선형 쉼다리(그림13)를 그려보았다. 독자분들은 어떤 다리를 건너보고 싶으신지 묻고 싶다. 실재 다리 가설 현장에서는 최소 연장의, 유속이 완만하며, 하부 지반이 안정화된 지점에 교각을 놓고 상판을 올리는 합리적·이성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긴 하다.



〈그림11~13〉《쉼다리 (1), (2), (3)》, 2025년, 캔버스에 아크릴화, 작품당 22.0 X 27.0cm (©문지영 작품)



〈그림14〉제2회 동강 쉼다리 축제 포스터 (출처: <https://ywpark.tistory.com>)

과거에는 일상의 생활을 위해 설치된 쉼다리가 오늘날에는 '지역 축제'(제00회 영월 판운 쉼다리 문화축제, 동짓날! 영월 쉼다리 놀기 놀이 행사, 영월 쉼다리 놀기 놀이, 다하누촌 쌍썬다리 재현 축제, 제00회 영월 쌍썬다리 마을 전통 한마당, 동강 쉼다리 축제 등) 및 '현장 체험'(다리놀이, 전통 쉼다리 밭기, 전통 쉼다리 건너기 등) 활동의 일부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썬다리 사진 촬영대회'(판운리 썬다리 사진 촬영대회, 정월 대보름 썬다리 촬영대회 등) 개최를 통해 썬다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 썬다리 부근에서 (일명) 문화콘서트를 열어서 지역의 명물로 '썬다리'를 자리매김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손이 많이 가지만 각별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그림15〉2022년 제3회 판운 쉼다리 문화축제 (출처: 영월인 <http://www.ywmedi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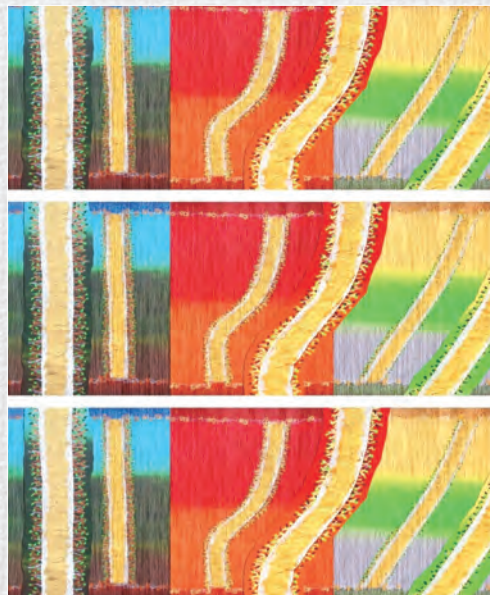
관광 콘텐츠로서의 쉼다리

과거 영월 주민들의 일상 속, 한 부분이었던 썬다리는 현대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월을 시작으로 정선,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썬다리를 복원하고 있고, 지역 축제에서 썬다리 놀기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보인다. 영월군은 2003년 쌍썬다리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썬다리와 관련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영월 동강축제, 단종문화제 등 지역의 굵직한 축제 때마다 썬다리 건너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제45회 단종문화제에서는 동강에 국내에서 가장 긴 250m 썬다리를 놓아 장관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타 지역으로 썬다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판운리청년회가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주천 여울목 썬다리 놀기 사업에 자문 역할을 맡았던 것이 한 사례이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와 경계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방안으로 지역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나무와 썬 휴만으로 만들어졌지만, 황소가 지나가도 주저앉지 않는다는 썬다리는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게다가 동강을 배경으로 한 썬다리의 고즈넉한 풍경은 도시 문명의 속도와 번잡함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마다 썬다리를 새로 놓는 일은 지역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이제는 이처럼 영월 특유의 민속인 썬다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콘텐츠를 발굴, 기획, 생산, 유통할 방법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yeongwol>



〈그림16〉섬다리
(출처: 『악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 2010년, pp.118-119)



〈그림17〉《섬다리 (1), (2), (3)》 재구성 (©문지영 작품)

섬다리를 추억하며

신순임

시심 고운 시인님 만나러 간 영월에서
새마을 운동이 가져간 섬다리 만났네
새삼 소쿠리 인 엄마 긴 치맛자락 뒤
막걸리 주전자 들고 종종걸음치다가
강 중간 뺨 뚫린 구멍으로 덜 마른 소깍¹⁾
불그죽죽한 다리 날개 마구 흔들려
오도 가도 못 하던 유년 불러내어
다릿발 울리도록 쿵쿵 끌려본다
도깨비²⁾에 홀린 종숙부 밤새 산천 헤맨 사연
흙 내음 퍼다 비린내 바꾸던 오일장 풍경
낮달 세수시키고도 말간 개울물 헤집고 나와
여울목 걸려 조각조각 난 그리움 짜 맞추어
구부러진 섬다리 등판에서 나비춤 추는데
낡은 시간 속 그 아이
아슴푸레한 얼굴들 더듬는 추억여행
미간에다 섬다리 하나 다시 놓네

1) 술가지
2) 도깨비

하진우

섬다리

청송에 맑은 강물
섬나무 다리 세워

소식을 머리고
마을에 전해주니

역사적

섬다리 전설
전통 지킨 민속촌

역사로 모래성을
옆 마을 이어준 길

섬다리 마을 이름
뜻만큼 역사 속에

전통을
지어진 마을
강물처럼 말없네

“떠나야 할 때를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 잊어야 할 때를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태주 시인의 〈떠나야 할 때는〉시 첫 구절에 나오는 문장이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는 015B의 노래 〈이젠 안녕〉속 가사이고, 섬다리는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다리이다. ‘가설(만남)’ 후 ‘철거(이별)’가 따라온다. 숙명이다. 만남은 이별을 약속하고, 이별은 다시 만남을 약속한다.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 ‘만난 것은 헤어지게 되고, 떠난 것은 꼭(반드시) 돌아온다.’ 불교(佛敎)의 경전(經典) 법화경(法華經)에 나오는 문구와도 똑 닮았다. 만남과 이별, 그 사이에는 우리들의 ‘추억’이 쌓여만 간다. 옛 다리(섬다리)의 ‘전통’을 지키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